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9, 3부

열왕기하 22-23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3장의 첫 구절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꽤 암울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나요? 첫째, 그는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이방 신들을 위해 만든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둘째, 그는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불편하지만 이것이 발기한 음경의 상징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원의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는 남성 이단 매춘부를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동성애 매춘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의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옳지 않지만 여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고 행주를 하고 있던 여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무엇? 아세라를 위하여. 그는 성전 문에 있던 해의 말들과 병거를 치웠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제단을 철거했습니다. 우와.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그림이 20년 후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그림과 너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이 물건은 다 제자리로 돌려놓았나요? 아니, 그 당시의 사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의 성격상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것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 밖에서는 전국 각지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불태웠던 도시 남쪽의 힌놈 골짜기에 있는 몰렉 신의 제단을 조롱하는 용어인 도벳을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을 마침내 제거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모스와 몰렉을 위한 신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마침내 그들을 감람산에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 북쪽으로 갔다. 그는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헐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북왕국의 큰 성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북왕국 초기에 여로보암이 아론 계통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임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엔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 같아. 그들은 유다에 속하고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셨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뼈는 그들의 제단에서 불에 탔습니다.

이제 나는 거짓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삶에서 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을 위한 장소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한 장소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종류의 급진적인 순종을 봅니다. 특히 바로 이 시점에서 유다 역사상 다른 어떤 왕보다 더 급진적으로 뿌리를 쫓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말했듯이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너무 무뎠다면 용서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종교적 급진성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음, 우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 북쪽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앗시리아가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이교도 사람들을 정착시켰던 아시리아 영토였고, 히스기야는 성대한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초대장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는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요시야는 올라가서 마침내 그 지역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 연구와 관련된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00년 전에 이미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단 모퉁이에 서서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유다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느 날 요시야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측 예언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 300년 전에 특정한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고 말하는 구약학도가 최소한 한 명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에 부합할 때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사실 요시야의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땅에 급진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포로 생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방자가오고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겠는가? 보시다시피, 나는 요시야가 그 땅에 있는 남은 자들, 즉 므낫세와 암몬의 죄로 인해 탄식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300년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용기를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년 반 동안 이어진 그 끔찍한 마지막 포위 속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음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마지막 포위 속에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도시가 함락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날에는 꽤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래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히스기야를 주셔서 유다가 앗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하신 것처럼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요시야를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더라도 믿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옷 안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옷 속에 예레미야서 두루마리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요시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천년 동안의 놀라운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직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미국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힘은 무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고, 일어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당신의 선물을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소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물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